

韓國近代小說의 平和思想

丘 仁 煥*

目 次

- | | |
|-------------------|-----------------|
| 1. 序 | (1) 抵抗意識 |
| 2. 近代小說의 發源體 | (2) 樂園意識 |
| (1) 유린된 民族意識 | 4. 平和思想의 繼時的 意味 |
| (2) 近代作家의 文學意識 | 5. 結 |
| 3. 近代小說에 나타난 平和思想 | |

1. 序

人間은 부단히 幸福을 추구한다. 現實에 安住할 수 없는 인간은 보다 상승되고 완성의 경지에 있는 그날이 실현되기를 希求하면서 현실의 불만과 고뇌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인간의 幸福은 平和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人類平和는 그렇게 쉽게 누리어 지지는 않는다. 지구에서 砲火가 그친 날이 없다고 하리만큼 戰爭의 위협 속에서 人間은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격동하고 있는 현대는 列強의 각축과 종족의 싸움으로 地上의 平和는 위협받고 있는 實情이다.

사실 현대를 悲劇으로 몰아넣는 平和의 저해 요소는 적지 않다.¹⁾ 「이데올로기」의 對立과 종족간의 분쟁과 경제적인 각축은 물론이요, 原子力의 발전과 自動化(auto-

1) 이미 Spengler가 그의 <西洋의 沒落>(1924)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大 師範大 副教授, 國文學

서울大·同大學院卒

著 書 : <文學概論>(共), <韓國近代小說研究>, <韓國文學 그 樣相과 指標>, <文學과 人間>, <小說集-山頂의 神話>, <당구는 自畫像>, <長篇-움트는 겨울>

論 文 : 技法의 否定과 革新, 蔡萬植小說의 二元性, 韓國小說의 樂園意識, 韓國近代小說의 史的 研究, 李光洙小說에 受容된 톨스토이 外 多數

mation)에서 비롯되는 科學의 발달과, 組織에서 결과되는 「메카니즘」과, 화폐에 예속되어 끌려 다니는 拜金主義(mammonism) 풍조, 그리고 産業의 발달에서 오는 「뷰로크라시」와 非人間化의 현상 등이 現代人間社會의 平和를 가로 막는 주요한 要因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더욱 複合化되어 人類平和를 위협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平和 추구의욕은 더욱 심오하게 作動하여 地上의 平和를 실현하려고 한다. 여기에 平和를 지해하는 요인들을 정리·제거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 그 意欲은 歷史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種族이나 國家 相互間의 利害와 涵數關係를 이루면서 추구된다. 그러나 그 平和는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平和는 人間이 추구하는 幸福이나 樂園의 전개 요건으로 추구된다.

사실은 幸福의 그날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可變의이고 不完全하여 인간은 새로운 그날을 欽慕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행복이니, 그날은 그것의 實現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그날의 의미를 定立하면서 보다 상승된 경지로 止揚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人間生活이 끊임없이 변모·발전해 와서 남기게 된 文化의 계승적 유산도 결국 平和를 추구하여 幸福을 누리려는 연속적인 指向性으로, 그 날을 실현하려는 욕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平和와 幸福의 추구를 宗教에서는 완성되어 永生을 누릴 수 있는 樂園인 「에덴東園」으로 人間의 영원한 安住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것은 완성되고 영속성을 具有한 듯이 보이는 그날을 定立·追求하면서도 언제나 상승적 可變性을 지닌 그날의 의미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流動性을 종교적으로 定着시키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萬人이 享有할 수 있는 幸福의 冀祝의 定着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인간의 五感七情에 의한 쟁투나 경쟁도 없고, 오직 平和만이 人間에게 행복을 누리게 할 뿐이다. 和平한 安락만이 모든 사람을 樂園의 主人公이 되게 한다.

원래 幸福이 個體의인 것에 그쳐서는 개인적 욕구의 만족은 될지언정 그것이 확대되어 낙원의 경지를 만드는 聯關性을 지니지는 못한다. 「에덴東園」이나 「武陵桃園」과 같이 固定·完成된 경지에서는 幸福은 다시 個體에게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기에 낙원으로 고정·완성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그것을 絕對化하려는 데 陳痛을 겪는다. 거기에는 個人의 영원한 安住와 永生하려는 회구를 넘어 集團의 구조로 이루어진 樂園을 추구·형성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에덴 東園」을 향한 인간의 回歸요, 天上樂園에 安住하려는 인간의 낙원의식이다.

이러한 平和 추구의 樂園意識은 宗教的,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文學的, 科學的

등 여러 면에서 추구되고 있다. 人間의 集團生活에 의한 平和追求는 社會的·政治的 추구이며,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어〉나 許筠의 〈洪吉童傳〉의 「碇島園」, 李清俊의 〈이어도〉, 拙作 〈山頂의 神話〉 등은 文學的 추구이며, 「에덴東園」이나 「極樂世界」, 「天上樂園」은 낙원의식의 종교적인 추구이다. 「플라톤」의 〈共和國〉은 시구에서의 樂園意識의 哲學的인 추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의 平和를 위한 樂園의 추구는 人間の 個體는 물론이요, 무궁한 平和에 의한 幸福을 누릴 수 있는 理想郷의 추구로 집약된다. 그러기에 인간은 낙원의식의 추구로 完成되는 永生的 幸福을 누릴 수 있는 平和의 경지를 추구하게 된다. 완성되어 영속되는 그런 경지가 바로 樂園이나 理想郷이다.

韓國文學의 平和를 위한 樂園意識의 추구는 한국문학의 출발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文學은 現實의 중요한 삶의 謳歌나 讚歌보다 보다 나은 그날을 그리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집요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鄉歌나 高麗俗謠는 말할 나위도 없고, 時調나 朝鮮小說, 開化歌辭 등에 平和를 추구하는 낙원의식이 집요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樂園意識을 추구하는 韓國文學의 平和思想은 주로 小說에 길게 나타난다. 詩歌의 경우는 具象化된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메타포하여 凝縮되어 個人의 幸福을 추구하는 領域에 멈추고 있다. 여기에 反하여 小說은 보다 구체적인 構圖 속에 낙원의식을 추구하는 平和思想이 나타나 있어, 韓國小說에 한국인의 平和를 지향하는 낙원의식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小說이 「리얼」한 현실을 再構成하여 美的 황홀을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지향하는데 장애가 되는 不條理를 고발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의 指標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韓國近代小說은 日帝治下의 植民地상황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自主獨立과 人間擁護를 기적으로 하는 平和思想이 그 주된 思想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主權을 상실하여 日帝의 쇠사슬에 억눌리어 처참하게 窒息당하는 民族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自主獨立의 그날을 성취하려는 의식이 韓國近代小說의 근저에 도드라져서 흐르고 있다. 그것은 人間存在를 해명하여 人間性의 本質을 추구하고, 현실을 고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指標를 제시하려는 現代小說의 韓國的인 樣相인 것이다.

그러므로, 日帝의 植民地에서 집요하게 自主獨立과 人間擁護를 바탕으로 하는 平和를 추구하려는 한국인의 生活相이 펼쳐져 있는 韓國近代小說에 나타난 平和思想은

한국근대소설의 思想的 배경으로 究明해 볼 필요가 있다.

2. 近代小說의 發源體

韓國의 近代小說은 그 起點이 문제되기는 해도²⁾ 대체로 20세기 모두에 시작된다. 그것은 朝鮮小說의 開化期小說에의 變形的인 쇠퇴과정에 西歐的인 小說美學의 受容으로 형성된 「리얼리즘」을 기저로 한 文學이다. 그러기에 한국의 近代小說은 한국적인 近代意識을 서구적인 「리얼리즘」으로 표현된 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近代小說의 平和思想을 추구하기 위해서 小說이 형성된 배경을 투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近代小說이 社會的, 政治的인 轉形期와 意識的인 變形期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배경적인 요인의 究明이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韓國 近代小說의 형성의 先行的인 요인으로는 시대적인 배경과 作家의 文學意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것은 小說의 思想이 형성되는 文學外的 他生的인 요인이요, 뒤의 것은 직접 作品으로 形象化될 수 있는, 文學의 作家에 의한 自生的인 요인이다. 이 두 요인은 小說의 主題意識으로 구체화되어 近代小說의 思想的인 支柱를 형성하게 된다.

1) 유린된 民族意識

한국의 近代小說은 朝鮮小說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實學思想의 대두에 의한 自我의 각성과 民衆의 主體意識의 자각은 朝鮮社會의 動요를 가져 오고 文學에도 그 의식이 침투된다. 人間存在의 유희적 再現이나 說話的인 「로망」에 幽閉되어 있던 朝鮮小說은 그 舊道徳이나 倫理意識에 의한 勸善懲惡의 안이한 主題意識에 침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다. 이러한 朝鮮小說은 開化期小說로 새로운 變形을 실험하여 자체의 변모를 시도해 보았으나 그 자체의 쇠퇴과정을 확인했을 뿐 小說의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開化期小說은 淸日戰爭이나 外國留學을 시도하는 당대 社會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舊生活意識에 의한 권선징악적인 주제와 善人과 惡人의 갈등이나

2) 韓國近代小說의 起點은 小說자체의 要因 곧 近代意識을 近代的인 小說技法으로 形象化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思想이나 時代的인 변모와 같은 文學 外的인 要因으로 그 기점을 정하는 것은 小說을 小說外的 것에 예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愚를 범하게 된다.

「해피 엔드」 등의 구조로 朝鮮小說의 그것을 붕괴하고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李光洙의 <어린犧牲>이나, 玄相允의 <逼迫>과 같은 새로운 의식과 技法에 의한 近代小說이 등장하여 開化期小說로 새로운 變形을 시도하던 朝鮮小說의 종언을 고하게 된다.

한국의 近代小說은 朝鮮王朝의 말기에 그 뜻을 올리었으나 國權의 喪失로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祖國의 獨立을 絕叫하면서 유린된 民族意識을 자가케 하고 그것을 鼓吹·伸長시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된다.

武力으로 半萬年 역사의 大韓을 合併하고, 白衣民族의 민족의식을 유린하며, 文化抹殺政策으로 민족은 유린되고, 言語와 文字까지 수탈당하게 되는 近代小說은 도도히 흘러 온 民族思想이 集大成한 主題意識을 形象化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生活의 反映에 머물고 말게 된다. 더구나 日帝의 철지한 검열로 유린된 民族意識을 고취·신장시켜 主權회복과 人間性 伸長을 펼치려는 平和 추구의식은 그 의욕을 크게 펼치지 못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文學은 日帝의 검열에 통과된 日帝의 管理文學이며, 文學史는 植民地文學史라는 異議가 나오고 있는 사실³⁾도, 民族의 受難에 의해 近代文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日帝治下의 植民地狀況을 강조한 所論이다.

3·1運動은 물론이요, 光州學生獨立運動, 6·10萬歲事件, 靑山裏싸움 등 이루 다 列擧할 수 없는 日帝에 대한 抵抗運動은 바로 유린된 民族意識을 되찾고 國權을 회복하려는 전 민족의 피어린 抗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것이 內外的으로 집요하게 계속되어 마침내 解放을 가져오지만, 近代文學은 검열에 막혀 이러한 民族의 受難과 抗學를 形象化하지 못한 것을 물론, 그러한 의식을 宣揚하는 救濟의 文學도 역할을 다하지도 못한다. 近代小說이 思想을 배제한 순수문학이요 溫床의 文學이라는 지탄을 받는 이유도 日帝의 植民地狀況을 초극하려는 告發과 삶의 指標를 제시하려는 강력한 主題意識이 결여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다. 그것은 검열이라는 關門을 통과해야 하는 유린된 민족의 受難史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民族의 受難의 植民地狀況에서 검열을 통과하면서도 유린된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내일의 추구는 平和意識을 形象化한 近代小說이 적지 않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植民地 민족의 유린상을 고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指標를 제시하려는 강력한 文學意識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3) 李靑原은 「民族文學史의 研究方法」(詩文學, 1976年 12號)에서, 1910年 후의 近代文學은 東京을 中心으로 한 검열에 통과한 植民地文學, 管理文學이기 때문에 發表할 수 없었던 光復文學의 資料에 의해서 文學이 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2) 近代作家의 文學意識

한국 近代小說의 平和意識의 또 하나의 요인은 文學現象을 담당한 近代作家들의 文學意識이다. 이 文學意識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形象化하는 源泉이기 때문이다.

근대작가의 文學意識은 李光洙에서 비롯된다. 물론 李海朝나 다른 開化期 作家에서도 小說에 대한 文學意識을 엿 볼 수 있으나 아직 미흡하고 <少年>이나 <青春>에 崔南善의 短評이 없지 않으나, 李光洙의 「文學의 價値」〔大韓興學報(11), 1910〕, 「文學이란 何오」〔每日新報, 1916〕, 「縣賞小說考選餘言」〔<青春>(12), 1918.3〕등과 崔斗善의 「文學의 의의에 관하여」〔<學之光>(3), 1914〕, 安廓의 「朝鮮의 文學」〔<學之光>(6), 1915〕 白一生의 「文壇의 革命兒야」〔<學之光>(14)〕 등에서 近代文學을 비롯하여 近代小說的인 文學意識을 엿 볼 수 있다. 崔南善은 情意에 의한 文學을 주장하고, 李光洙는 「文學의 價値」에서

『元來 文學은 다못 情的 滿足 卽 遊戯로 생겨 나실지며, 또 多年間 如此히 알아와 시니 점점 進步發展함에 及하야는 理性이 添加하야 吾人의 理想과 理想을 支配하 는 主權者가 되며 人生問題 解決의 擔任者가 된저라.』⁴⁾

라고 말하면서 文學을 오락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개탄하고 국민의 現象과 理想을 지배하는 者가 文學이라고 文學의 效用성을 크게 강조한다. 이런 文學의 社會的 效用성을 白一生은 그의 「文壇의 革命兒야」에서

『朝鮮民族의 指導者가 되는 文壇의 勇士야! 文學의 天地는 自由의 天地라. 忌憚할 바는 無하며, 畏懼할 바는 無하도다. 藝術派의 南歐文學도 可하며, 人生派의 北歐文學도 可하며, 折衷派의 英米文學도 可하며, 雜種派의 日本文學도 可할지니, 此를 輸入之, 譯述之, 消化之하야 우리 民族性을 힘있게 發揮하는 時代的 我們的 文學의 基礎를 樹立하여 세계에 떨쳐라.』⁵⁾

고 西歐文學의 수입, 역술, 소화에 의한 民族을 지도하는 文學의 기초를 수립하고자 文學의 效用성을 전제로 문학의식을 펼치고 있다.

4) 李光洙, 「文學의 價値」, 大韓興學報(11), 1919

5) 白一生; 「文壇의 革命兒야」, 學之光(14), 이에 대한 反論인 徐尙一의 「文壇革命兒야를 讀하고」가 學之光(15)에 발표됨

그러나 문학의 효용성은 단순한 敎養의 확대만이 아니고, 生存의 自由마저 수탈하는 植民地 상황을 극복하여 主權 회복에 의한 平和를 추구하는 삶의 指標의 제시로 발전되어 간다. 그것은 狀況을 告發하고 해쳐 나가려는 樂園指向意識의 발로다. 李光洙는 「余의 作家的 態度」에서,

『내가 小說을 쓰는 究境의 동기는 내가 新聞記者가 되는 究境의 動機, 教師가 되는 究境의 동기, 내가 하는 모든 行爲의 究境의 동기와 일치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朝鮮과 朝鮮民族을 위하는 奉仕——義務의 履行」이다. 이것뿐이요, 또 이밖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일생에 하는 일이 朝鮮과 朝鮮民族의 地位의 向上과 幸福의 증진에 毫末만큼이라도 寄與함이 되어지다 하는 것이 내 모든 행위의 根本動機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가 와서 國境과 民族的 모든 差異——言語, 生活狀態, 習俗 등——가 消滅되기까지는 민족적 유대는 절대적이다. 더구나 今日的 朝鮮民族과 같이 民族向上운동이 필요한 地域에서는 모두 朝鮮民族의 민족적 單一體思想을 파괴한 思想이나 행동은 朝鮮民族의 적이니, 그러한 思想이나 행동을 하는 자는 民族的 謀反者로 볼 것이다.

내가 小說을 쓰는 根本動機는 여기에 있다. 民族意識, 民族愛의 高潮, 民族運動의 記錄, 檢閱官이 許하는 限度의 民族運動의 讚美, 만일 할 수만 있다면 煽動, 이것은 과거에만 나의 主義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아마도 나의 一生을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⁶⁾

라고 民族意識의 고취와 民族運動의 찬미, 선동에 의한 植民地 상황을 극복하려는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民族意識과 民族運動은 유구한 歷史를 지닌 朝鮮民族의 自主獨立의 정신과 그 운동을 말한 것이다. 朝鮮과 朝鮮民族의 地位向上과 幸福은 自主獨立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李光洙의 民族主義는 당시 상황을 극복하려는 文學意識이다. 그것은 李光洙의 〈어린 犧牲〉이나 〈獻身者〉와 같은 초기단편은 물론이요, 〈흙〉이나 〈無情〉 등의 長篇에서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찬미했을 뿐 아니라, 〈端宗哀史〉와 〈異次頓의 死〉, 〈元曉大師〉 등 歷史小說에서 歷史를 再認識하여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있는 發源體가 되고 있다.

또한 玄鎭健은 朝鮮魂과 朝鮮精神의 파악을 강조한다. 그는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文學」에서

6) 李光洙：「余의 作家的 態度」東光, 1931.4

『時間과 場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치 못하는 것이다. 달나라의 소요도 그만 둘 일이다. 朝鮮文學인 다음에야 朝鮮의 땅을 튼튼히 디디고 서야 할 줄 안다. 現代文學인 다음에야 現代의 정신을 힘있게 호흡해야 할 줄 안다. 南歐의 쪽으로 그친 듯하다는 하늘에 憧憬의 한숨을 보여도 쓸데없는 일이다. 金剛의 기뿌리에 부신 햇빛이 白金으로 번쩍이지 않느냐? 까마득한 未來의 樂園에 想像의 날개를 펼침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손을 벌이면 잡을 수 있는 눈 앞에 쌀쌀하게 피인 한 벌기의 개나리가 봄소식을 전하지 않느냐. 「로만티즘」도 좋다. 「리얼리즘」도 좋다. 象徵主義는 나쁜 것이 아니요, 表現主義는 버릴 것이 아니다. 오직 朝鮮魂과 朝鮮精神의 把握, 이것이야말로 다른 아무의 것도 아닌 우리 文學의 生命이요 特色일 것이다……차근차근하게 제 周圍를 觀照하고 고요하게 심장의 고동하는 소리를 들을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運命인 줄 안다.』”

라고 朝鮮文學은 現代精神을 호흡하면서도 朝鮮의 땅을 디디고 서야 하고, 무엇보다 朝鮮魂과 朝鮮精神의 파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文學意識은 日章旗抹殺 사건으로 표상되는 그의 생활과 신라의 전설을 長篇化한 〈無影塔〉과 日帝의 검열로 중단된 〈黑齒常之〉와 같은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近代小說의 平和意識 추구의 文學意識은 民族意識과 民族運動의 찬미와 선동, 그리고 朝鮮魂과 朝鮮精神을 발견하여 宣揚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수 많은 작품의 發源體가 된다.

3. 近代小說에 나타난 平和思想

韓國의 近代小說에서의 平和思想의 추구는 抵抗意識과 樂園意識의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저항의식은 日帝에 主權을 빼앗겨 속박 당하고 있는 植民地 상황을 고발하고 그것을 超克하려는 삶의 指標를 제시하려는 의식이요, 낙원의식은 한국인이 염원하는 樂園을 실현하려는, 自我와 민족의 완성을 지향하는 의식이다. 이 두 의식은 잃어버린 國權을 회복하여 한국인이 추구하는 自主獨立에 의한 낙원을 실현하려는 의식으로 集約된다. 抵抗意識은 낙원 추구의식에 의해 그 의식의 指向性을 지니며, 낙원의식은 저항의식에 의해 그 실현이 가능한 相關性을 지니면서 近代小說의 平和思想으로 나타난다.

7) 玄鎮健;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文學」, 〈開關〉, 1926. 1

1) 抵抗意識

抵抗은 긍정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그것은 指向을 가로막는 현실의 告發과 그것의 제거를 위해 삶의 指標를 제시하는 두 양상을 띠운다. 그것은 告發에 의한 것밖에는 現實을 浮刻시켜 확대시키는 소극적인 저항의식을, 그러한 狀況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生活의 모델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저항의식으로 확대해 가는 양상을 말한다.

이 두 경향의 抵抗意識의 발현에서 한국 근대소설은 전자의 樣相이 짙게 나타난다. 그것은 日帝의 植民地下에서의 主權과 自由 회복을 위한 한국인의 처절한 原初的 絕叫의 문학적인 발현이며, 그러한 현실의 고발이요 投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소설의 平和思想으로 集約되는 저항의식은 告發性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李光洙와 玄相允의 초기 단편소설에서는 주로 生의 비극적 인지와 自我의 省察로 나타나고 李光洙의 〈無情〉이나 〈開拓者〉에선 기존가치에 대한 反省과 批判으로 나타나 內的인 요인에 告發性을 띠운다.

主權과 自由 회복을 위한 反抗이나 告發은 20年代 小說에 와서 비로소 짙게 나타난다. 廉想涉의 「萬歲前」은 知識人(大學生)의 눈에 비치고, 또 그가 겪어야 했던 被壓迫民族으로서의 慘酷相을 여실히 고발하여 그 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인호가 下關이나 釜山, 그리고 金泉에서 겪어야 하는 감시와 속박, 관부연락선 안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노무자들의 참상, 金泉과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변모해 가는 親日的인 양상, 이 모두가 平和스러운 民族生活을 누릴 수 없는, 처참하고도 암적인 현실이다. 그러한 현상을 고발하면서 廉想涉은 知識人인 主人公(인호)으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들은 배추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을 듯한 천한 옷차림이다. 「헤헤」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뚱져 버려라) 차간 안에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의쳤다.

(무덤이다! 구더기 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다!)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데 죽어서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

가? 그러나, 하여간 구더기가 득시글 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두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에잇 똥져라. 유포도. 싹도 없이 쓰러지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로 와서 드리 누웠다. 어느덧 난로 옆으로 등 너머로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 가끔 끼쳐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름내, 분내를 코로 은은히 맡아가며 눈을 감고 누웠었다.

이것도 구더기 썩는 냄새이기는 일반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자로 絶叫케 한다. 3·1運動의 실패로 좌절되어 있는 民族의, 日帝에 의해 처참하게 사들여가는 現實을 여실히 부각시켜, 그런 현실을 확대하여 民族意識을 일깨우고 있다. 廉想涉의 「三代」, 「無花果」, 「白鳩」의 三部作에서도 보여 주듯이 植民地下에서의 한국인의 처참한 생활은 그대로 감수할 수 없는 民族的인 치욕의 現場이다.

이런 고발에 의한 소극적인 저항의식의 발현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玄鎭健의 「술 勸하는 社會」나 蔡萬植의 「레더메이드 人生」, 俞鎭午의 「金講師와 T教授」 등은 植民地下에서의 知識人이 처한 참상을 고발한 것이요, 玄鎭健의 「犧牲花」와 崔鶴松의 「脫出記」, 朱耀燁의 「人力車군」 등은 생활의 참상을 고발한 것이다.

日帝는 철저히 고압인력의 성장을 억제했기 때문에 당시의 知識人은 갈 곳이 없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主權을 빼앗고 수탈당하고 유린되는 民族의 처참한 現實은 知識人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抵抗이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知識人은 悔悟 속에 방황할 수 밖에 없다. 玄鎭健의 「술 勸하는 社會」는 그러한 知識人의 소극적인 저항의 나약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도 못 알아 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 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야! 에잇 가슴 답답해』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피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듯이 제 가슴을 쥐어 뜯는다.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이 하는 것을 본체만체 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

그 말에 몹시 놀랜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 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苦惱)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 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쪽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급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후우」

「아이 답답 해 !」

문득 기막힌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申略)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아니 잃으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듯 하였다. 심신(心身)이 텅 비어진 듯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회란 독한 꿀을 그려 보는 것 같이.

쓸쓸한 새벽 바람이 쓸쓸하게 가슴에 부딪친다. 그 부딪치는 시슬에 잠 못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극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험췌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멀며 절망한 어조로 소근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植民地의 현황, 그것은 「萬歲前」에서 말하듯 구더기 뒤끓는 공동묘지나.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彷徨해야 하는 진주(다섯꽃)를 잡고 떨고 있는 知識人의 고뇌를 蔡萬植은 그의 「레디 메이드 人生」에서,

『소설가가 원고료를 얻어 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 먹고, 음악가가 광대의 천호(賤號)에서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수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래졌다. 연애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쥬아지는 가보랄 잡고 공부한 일부 지식군은 진주(다섯꽃)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은 부대를 잡았다. 그들에게는 조선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을지언정 털어 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배(梨) 주고 속 얻어 먹은 셈이다.

인텔리……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해마다 천여명

씩 늘어가는 인텔리……뺨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쥬아의 모든 기관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느니 그들은 결국 폐 입을 받아 나무에 올랐다가 흔들리우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진 인텔리요, 무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 메이드 인생이다.』

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植民地에서 고뇌를 술이나 카페여급에 의해 解消시키려는 니약한 知識人보다 民族의 受難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저항도 볼 수 있다.

「익호」가 만주벌판에서 行動으로 보여 주는 金東仁의 「붉은 산」이 그 대표적인 作品이다. 샹이라는 별명을 가진 「익호」. 余가 觀察者가 되어 一人稱觀察者 視點으로 된 이 「붉은 산」은 정든 故郷에서 쫓겨나 滿洲벌판에서 彷徨하면서도 民族意識을 펼치려는 익호의 행동에 의한 저항을 形象化하고 있다. 더구나 祖國을 상징하는 붉은 산과 民族을 표상하는 흰옷을 그리며 숨을 거두는 終末場面은 祖國愛에 불타는 익호의 殉死하는 場面은 익호의 저항의식을 응축시키고 있다.

『보고 싶어요. 전 보구 시……』

그는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말이 안 나왔다. 기운이 부족한 모양이었다. 잠시 뒤에 그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무얼?」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그리고 흰 옷이」

아아! 죽음에 임하여 그의 고국과 동포가 생각난 것이었다. 여는 힘있게 감은 눈을 고즈너기 떴다. 그때에 삶의 눈도 번쩍 뜨이었다. 그는 손을 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부러진 그의 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돌이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힘을 혀 끝에 모아가지고 입을 열었다…….

「선생님!」

「왜?」

「저것——저것——」

「무얼 ?」

「저기 붉은 산이——그리고 흰옷이——선생님 저게 뭐예요 !」

여는 돌아 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황망한 만주의 벌팔이 전개되어 있을 뿐이다.

「선생님 노래를 불러 주세요, 마지막 소원——노래를 해 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는 머리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의 입에서는 찬가가 흘러 나왔다.

여는 고즈너기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즈너기 부르는 여의 찬가 소리에 뒤에 둘러섰던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송엄한 코러스는 울리어 나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광막한 겨울의 만주벌 한편 구석에서는 밥버리 익호의 죽음을 조상하는 송엄한 노래가 차차 크게 엄숙하게 울리었다. 그 가운데 익호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愛國歌를 마음대로 부르고, 붉은 산으로 상징되어 있는 故鄉에서 흰옷을 입고, 平和스럽게 살지 못하고 異國의 만주에서 彷徨해야 하는 植民地下的 민족의 현실은 익호의 죽음으로써 자주독립을 누릴 수 있는 해방을 향한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또한 李光洙가 〈端宗哀史〉, 〈元曉大師〉, 〈異次頓의 죽음〉, 〈麻衣太子〉, 金東仁이 〈大首陽〉, 〈雲峴宮의 봄〉, 〈젊은 그들〉, 玄鎭健이 〈無影塔〉, 〈黑齒常之〉등의 歷史小說을 써서 민족의 傳統과 民族意識을 宣揚한 것도 平和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作家意識의 발현이다. 민족의 옛을 아는 것 이상으로 民族의 傳統과 거기에서 生動하는 民族意識을 民衆에게 선양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近代作家들은 歷史小說으로써 民族의 오늘을 조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상에 본대로 平和를 추구하려는 抵抗意識은 치참한 植民地에서의 民族의 현실이나 그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知識人의 나약한 상황의 告發과 民族意識

에 불타 祖國을 그리며 저항하는 行動, 民族의 과거에 의해 오늘을 透視하려는 歷史 小說 등 여러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樂園意識

낙원의식은 인간의 영원한 安息處를 추구하는 平和思想의 根幹意識이다. 그것은 인간이 영원히 平和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實現하려는 의식이다. 近代小說에선 植民地 狀況이란 外的 要因은 물론이요, 인간이나 민족이 지닌 限界性을 벗어나 영원한 平和의 그날을 누리려는 낙원의식이 짙게 발현되어 있다.

李光洙의 〈홍〉이나 沈薰의 〈常綠樹〉 등은 理想村을 건설하여 平和스러운 삶을 누리려고 하는 낙원의식에 의한 현실의 극복과 來日의 指向性을 보여 준 作品들이요, 羅稻喬의 〈빙어리 三龍이〉, 李箱의 〈날개〉 등은 美意識의 추구에 의한 낙원 의식의 추구를 나타낸 작품이며, 金東仁의 〈무지개〉 등은 오늘과 來日을 연결하여 上.昇하려는 인간의 의욕을 부각시킨 作品들이나.

〈홍〉에는 살여울을 理想村化하려는 허송의 낙원 추구의식이 集約되어 있다. 허송은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 주고 주재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도 글도 가려쳐 주고, 소비조합도 민들이 주고, 뒷간, 부엌 소재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라고, 정선과 유순을 兩極으로 하는 애정의 갈등 속에 있으면서 살여울을 위해 몸을 바치려는 垂直的인 지도자로서의 낙원 추구의식을 보여 준다. 〈常綠樹〉는 박동혁과 채영신이 水平的인 지도자로 낙원의식을 추구하는 집요한 의지가 形象化되어 있다.

그러나 〈빙어리 三龍이〉와 같이 美意識의 結晶에 의한 낙원의식의 추구도 볼 수 있다. 그 終末의,

『그는 건너 방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새서방이 그의 팔에 메달리어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서까래가 불이 시뻘쭙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 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분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 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색시가 타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 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 놓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지붕은 모조리 타고 번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놓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넓게 나타났을 뿐이다.』

의 場面은 「빅톨·유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에서와 같은 낭만에 겨운 황홀한 美意識에 취하게 한다.

近代小說에서 낙원의식이 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 李光洙의 <사랑>과 <有情> 등이 있다. 近代小說의 巨木인 李光洙의 全作小說인 <사랑>은,

『육체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많겠지마는 그것은 마치 생물계에 사랑보다 벌레가 많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육체의 결합과 아울러 정신에 대한 사모를 짝하는 사랑이야말로 비로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을 가지겠지마는, 한층 더 올라가서 육체에 대한 욕망을 전혀 배어버린 사랑이 있는 것이 인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라고 自序에서 말한 세 가지 사랑에서 세째 사랑의 경지를 흠모한 石荀玉과 安賓의 순애의식을 形象化한 작품이요, <有情>은 崔哲의 딸 같은 정임에 대한 純愛를 그린 作品으로 이 두 作品은 李光洙의 사랑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樂園意識이 集約되어 있는 作品들이다.

金東仁의 <무지개>는 산너머에 걸쳐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 부질없이 뛰어가는 손이 닿을 수 없는 행복을 상징한 것이라고 云謂되지만, 무지개로 상징되는 낙원을 추구하는 집요한 자세로 봐야 된다.

이상에서 본대로 近代小說의 樂園意識은 현실을 극복하여 그날을 實現하려는 낙원 추구 의식과 순수한 美意識에 安住하려는 경향으로 集約되어 있다.

4. 平和思想의 繼時的 意味

近代小説에 나타나 있는 抵抗意識과 樂園意識을 기층으로 하는 平和思想은 韓國文學의 중요한 思想的 배경을 이루고 있다.

佛敎의 信心을 달에 기탁하여 노래한 「願往生歌」를 비롯하여, 〈供吉童傳〉이나 〈九雲夢〉이나 〈許生傳〉 등은 樂園意識에 의한 「유토피아」를 추구한 작품들이요, 〈春香傳〉이나 사설시조, 「壬辰錄」 등은 抵抗意識이 集約된 작품들이다.

또한 近代小説의 平和思想은 現代小説에 계승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있다. 抵抗의 대상이 민족을 유린하는 日帝에서 人間性을 유린하는 새로운 不條理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것은 전쟁의 「메카니즘」이 될 수도 있고 또 社會性이니 拜金主義, 現代社會의 「메카니즘」이 될 수도 있다.

金聲翰의 〈바비도〉나 吳尙源의 〈黃色地帶〉, 朴景利의 〈不信時代〉, 鄭乙柄의 〈피임 사회〉, 辛錫祥의 〈俗物時代〉, 吳贊植의 〈社說 고치는 사람〉, 拙作 〈일어서는 나무〉 등은 抵抗意識을 계승한 작품들이요, 黃順元의 〈움직이는 城〉이나 崔仁勳의 〈廣場〉, 李清俊의 〈이어도〉, 〈당신들의 天國〉, 鍾 작 〈山頂의 神話〉 등은 樂園意識을 추구하는 作品들이다.

現實을 초극하여 樂園을 추구하려는 平和思想은 한국의 近代小説의 중요한 思想的 배경을 이루면서, 現代小説에 계승되어 小説의 새로운 指嚮를 제시하고 있다.

5. 結

인간의 幸福을 누리려는 平和思想은 樂園思想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장애가 없는 永生의 安息處를 회구하고 또 그 希求를 달성하기 위해 무단히 努力한다.

日帝植民地下에서 한국인의 평화추구는 상식한 主權을 회복하여 自主獨立에 의한 自由로운 날을 누리는 일이다. 많은 先烈과 先人들은 이 獨立을 위한 抵抗으로 해방이란 平和로운 그 날을 위해 집요한 투쟁을 계속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형성화된 韓國近代小説에 나타나 있는 平和思想을 檢證해 왔다. 그것은 몇 가지로 요약되어 진다.

- ① 韓國近代 小説은 主權 상실에 의한 민족의 受難의 背景 속에서 形成·成長한다.
- ② 近代小説은 民族意識과 民族의 찬미·선동이라는 民族主義와 朝鮮魂과 朝鮮精

神을 발현해야 한다는 朝鮮主義의 文學意識이 發源體가 되어 펼쳐진다.

- ③ 近代小說의 平和思想은 抵抗意識과 樂園意識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 ④ 抵抗意識은 <萬歲前>과 같이 植民地下 현실의 告發과 <술 勸하는 社會>나 <레디메이드 人生>과 같은 知識人의 고민, <붉은 山>의 祖國愛, 그리고 많은 歷史小說의 樣相으로 나타난다.
- ⑤ 樂園意識은 <흙>이나 <常綠樹>와 같은 理想村의 건설, <멍어리 三龍이>의 美意識, <무지개>의 「유토피아」의미의 정립에 의한 指向性으로 나타난다.
- ⑥ 이러한 平和思想은 韓國文學의 傳統的인 脈絡을 이루어 現代小說에서도 여러 樣相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文學意識은 變形되어 가지만 平和思想은 韓國小說의 중요한 思想的背景을 이루어 韓國小說의 主題意識을 심화시켜 갈 것이다.

《參考文獻》

白 鐵；新文學思潮史，新丘文化社，1972

趙溶鉉；韓國近代文學史，人間社，1968

金允植, 김현；韓國文學史，民音社，1973

金宇鍾；韓國現代小說史，成文閣，1978

語文閣；新韓國文學全集

R. Scholes :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Y., 1973

J. Rockwell : Fact in Fiction, London, 1974

Dian Spermann : The Novel and Society, London, 1996

P. Brooks :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1976

Spilka : Towards of Poetics of Fiction, Indian Univ., Press, 1977

「少年」, 「青春」, 「學之光」, 「開闢」, 「東光」 등 雜誌